

연중 제13주일

기도서 380면 (B해)  
제1독서 : 지혜 1, 13-15  
2, 23-24  
제2독서 : II 고린 8, 7, 9, 13-15  
복음 : 마르 5, 21-43

# 숨정 이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고 말씀 하셨다. (마르코 5,34).

## 강론

### 주님은 나의 구원자

소 순형 신부 / 동산성당 주임

예수께서는 아이로라는 회당장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 주셨다. 예수께서 아무 조건없이 회당장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회당장과 그의 가족은 예수께 받은 그 은혜로 절망과 슬픔 비애가 큰 기쁨과 벽한 환희와 밝은 빛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예수 그분께서 친히 그 가정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어찌 그에게만 구원자이겠는가?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이에게 똑같이 구원자이시다.

사실 성서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독과 슬픔 가운데서, 병고와 죽음에서 주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으면서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평화, 지혜와 빛을, 희망과 용기, 새삶과 생명을 얻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 역시 어두움 가운데 있을때 그분을 찾으면 주님은 빛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절망할 때 그분께 부르짖으면 우리 마음에 희망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그분을 바라보면 위로와 평화, 용기와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서 병고와 죽음을 몰아내시고 기쁨과 생명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만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가? 꼭 병이 나아야만 주님이 은총을 베푸신 것인가? 꼭 자기의 기도대로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가 되는가? /

비록 우리가 부자가 못되더라도, 병중에 있더라도,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되지 못하더라도, 정말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 정말 용서받고 싶을 때, 진정한 피난처가 필요할 때, 그분에게 용서를 체험하고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찾으며 새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래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참다운 구원자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 소리

### 무한경쟁 유한질문

학업성적에 쫓겨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청소년에 대한 슬픈 소식에 접할 때 성인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집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니가, 또는 아주 못해 포기했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해버리지는 않는가. 조금만 부추겨주면 자녀의 성적이 나아지려만 형편이 어려워 「물래바이트」를 시키지도 못하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더 다그쳐 석차가 단 몇 자리라도 앞서게 했으면 좋으려만 요즘 잇단 불상사로 그러지 못함을 안타까와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 지지리도 못나빠져 고민을 안겨주는 고인들을 원망하지는 않는가.

우리들의 자녀에는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 내가 못 이룬 것을 아이들이 꼭 해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가. 자녀가 어떻게든 출세하여 권세를 잡거나 어느 분야에서나 남의 뒷자리에 앉아 지배적 역할을 해주지만 바라지는 않는가. 이같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 사회의 모순, 뒤틀린 교육제도의 잘못됨을 인정하면서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수 없다는 핑계로 자기중심적 훈도를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혹여 자란뒤 할일없이 놀며 끝까지 속을 썩여줄까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공부잘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서도 이런저런 암시나 비유를 모르는 사이 저들이 창창한 앞날을 고통거리로만 여기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서는 세속을 버리게 해달라고 매양 기도하면서도 자녀들의 뒤처닥 거리를 한낱 양도보험납금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주여 이 각박한 무한경쟁의 사회제도 가운데서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신앙에 삼덕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 숨정이 산책



## 중공 교회가 살아난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하여 자신들과는 공존할 수 없는 장애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신들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임을 깨닫게 되면서 공산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 했고 이 흔들림은 종교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달라지게 되었다. 중공의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공이 모택동에 의해 공산화 되면서 중공의 교회는 표면상 두개의 교회로 갈라졌다. 하나는 교황청과 단절된 어용 '애국교회' 요, 또 하나는 교황청과 단절된 교회는 더 이상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고 하며 지하로 숨은 지하 교회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 졌다. 그동안 정부와 협작 이권을 누리던 애국교회가 그 빛을 잃고 지하에 숨어 있던 정통 교회가 다시 미약하나마 활동이 전개되면서 '교부 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교회의 본체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다. 더구나 중공과 교황청과의 외교관계 회복이 시간 문제로만 남아 있는 처지에서는 그 속도가 급속

히 빨라 지리라 전망 되기에 중공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침묵의 교회가 아닐 것 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물론 정부와 밀착 되긴 하였으나 나름대로 교회가 살 길은 그 길 뿐 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55명의 주교와 1천~1천5백 명의 사제중 상당수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는 애국교회와 이들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있는 35명의 주교와 수백 명의 사제가 이끄는 지하교회와의 갈등은 쉽게 해소 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은 있다.

어떻든 중국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문제는 북한 침묵의 교회이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듯이 북한의 정치 역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의 지하교회 역시 되살아 날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은 침묵의 교회를 위해 기도 하는 날, 부푼 꿈을 안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자.



### 성서와 함께

### 8. 팔레스티나의 기후와 계절

지리적 조건과 더불어 기후는 성서의 사건들과 표현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위도상으로 아열대에 속하는 팔레스티나의 기온과 강수량은 그 적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북쪽의 헤르몬 지방엔 연중 강수량이 150cm를 웃돌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적어져서 예리고에 오면, 10cm 미만이고, 사해 연안엔 그 보다 더 적다. 겨울비를 동반하는 "천기우기"는 10월에 시작하여 12월에서 3월 사이에 절정을 이루고, 따뜻한 봄비의 "후기우기"는 4월과 5월 중에 위치한다.

기온의 차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다. 갈릴래아 북부 지역의 온도는 겨울에 평균 7°C, 여름엔 22°C인데 반하여, 예리고와 꿈란, 마싸다 지역의 사해연안은 30°C에서 40°C의 폭염에 시달린다. 이 폭염과 더불어 늦은 봄과 초여름에 불어닥치는 유대사막의 건조한 바람은 모든 초목을 시들게 한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이사 40, 6). 한편,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비구름을 동반한 태풍을 몰고와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끼친다.

팔레스티나의 사계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 해의 시작은 가을이다. 우기가 서서히 시작되는 이 때에 농부들은 그 해 경작할 땅을 파 일군다. 곧 본격적 우기철인 겨울이 닥치면 곡식의 씨가 뿌러지고, 그 씨는 겨우내 땅 속에서 생명력을 키운다. 그래서 겨울은 가나안 영태의 계절이 된다. 얼어붙는 추위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정월과 2월엔 주로 북쪽의 산악과 갈릴래아 호수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찬비 속의 추위에 대지는 몸을 움크린다. 마침내

부드럽고 포근한 보습비를 동반한 봄이 오면, 꽃들이 만발하고 곡식의 씨앗이 움터서 대지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봄은 짧지만 행복한 철이다: "파란 무화과 열리고 포도꽃 향기가 풍기는 계절"이다(아가 2, 13).

곧 이어 비가 그치고 여름이 시작된다. 초여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다. 먼저 보리가 거두어지고 다음에 밀이 추수된다. 추수가 끝나면서 온갖 생명체의 "잔액을 다 말라 빠지게 하는" (시편 32, 4) 혹심한 가뭄과 더위가 밀어닥친다. 대지는 흙먼지에 뒤덮이고, 땅속 깊이 뿌리를 박은 올리브와 포도와 무화과나무들만이 살아남아 식생활에 필요한 열매를 제공한다. 여름은 이제 죽음의 계절이다. 가나안 여름의 막바지에 생명을 지닌 온갖 피조물은 가장 큰 시련에 봉착한다.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이다.

기후와 계절의 변화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지금처럼 자연을 전혀 관리·통제 할 수 없었던 그들은 자연이 주는 혜택과 재앙을 하느님의 상선징약으로 받아들었다. 기후와 계절의 법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고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현대인들처럼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파괴하지도 않고, 자연을 신격화시키는 범신론의 오류에도 빠지지 않았다. 자연 안에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한 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하느님과 인간사이의 대화를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김안과의원

원장 김효열 (헨리교)  
전 은주 (베로니카)  
전주코아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 85-3020

### 축개업 세라미용실

컷트·드라이·파마  
유순주 (막달레나)  
효자동 주공3단지 맞은편  
(세종소아과 옆 2층)  
☎ 83-7834

### 신입사원모집

당사는 수출섬유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남자, 여자사원 약간명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 자격 : 고졸이상 병역필한자  
 • 근무처 : 주민등록등본 2통  
 • 공고출업 우대  
 • 증명사진 1매  
 • 여상출업 우대(각격증 첨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전주시 금일동 475번지 (교보빌딩 뒤 건물 2층)

**동양섬유** ☎ 3-9340

교 구 소 식

1. 혼인법원 : 28일(화) 오후 2시 장소-교구청 사목국(85-0041)
2. 7월 웨일라레 수도자 모임 : 7월 1일(금), 7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3. 웨일라레 운동의 하루 마리아 빨리 : 7월 3일(일) 12시 30분~18시 장소-해성 중·고 강당. 대상-중, 고생, 대학생, 청년, 기혼 남·녀, 수도자(많은 참석 바람). 참가비-1,000원
4. 중·고 교리교사 연수회 : 7월 1일(금)~7월 4일(월), •송광사 제 2 야영장 •접수 및 문의, 교재신청-교육국(85-0041)
5. 초등부 교리교사 연수회 : 7월 5일(화)~7월 8일(금) •송광사 제 2 야영장 •접수 및 문의 교재신청-교육국(85-0041)
6. 대학생 연합회 지역대회 : 7월 11일(월)~7월 14일(목) •진안 어은동~한들, 회비-5,000원
7.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소 피정 : 일시-7월 29일~31일(2박3일) 장소-경남 산청 성심원, 집결지-진주시 칠암동 성당. 오후 2시까지, 대상-고교생(참가비-5,000원) 준비물-성서, 목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문의처-서울 정동 수도원(02) 753-4637~8
8. 성모기사회 : 일반-7월 2일(토) 청년직장인-오후 6시, 효자동천주교회
9. 전화번호안내 : 교구주소록 4면 김영일 신부님 전화번호, 75국을 83국으로(4191)정정합니다.

※ 축 / 영명 성 요한세자(24일) : 김봉희, 왕수해, 한기호, 김요한 신부님  
 성 베드로 바오로(29일) : 서석기, 김병엽, 박창신, 엄기봉, 문규현, 이순성, 김희남 박인호, 정양현, 방의성 신부님 축하합니다.

두레상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생명의 물 한 바가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걸 보니 한여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시원한 것만 찾습니다. 갖가지 청량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이 불타나게 팔리고 선풍기와 에어컨이 사방에서 돌아 갑니다. 찬 물을 몸에 끼얹으며 마음은 시원한 계곡과 바다로 치달립니다. 가히 여름은 물의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고 좋기로 이름났습니다. 이 땅 어디서나 맑은 물이 샘솟아 내를 이루었습니다. 바가지로 뜨고 두레박으로 갖고 펌프로 퍼올리던 물은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한 모금 들이키면 오장육부가 다 씻기듯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우리의 물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지만 그 물은 예전같이 싱싱하지 않습니다. 찬 물 그대로가 가장 좋은 물이라는 진실은 위협시되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값비싼 정수기로 거르거나 큰 돈 주고 포장된 생수를 사먹거나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약수터에서 한참 기다려야 찬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실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죽으면 인간도 죽습니다. 하늘과 땅을 맴도는 물은 우리의 자연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정직하게 보여 줍니다. 정수기나 포장물에 안심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자연을 더럽히는 원인을 철저히 없애는 길만이 물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는 생명의 물이 샘솟는다고 하였고, 또한 자신의 피를 생명의 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마시면서 거기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그 마음엔 생명을 지키라는, 사람과 자연을 살리라는 간곡한 호소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그 생명의 물로 오염된 세상을 맑게 변화합니다.

요십이 (777) 김병오



□ 1분 명상

인간의 행복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에 있지 않고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에 말고 믿는 것이다.

**명동피부과의원**

이 등번호의원 전

진료과목 : 한방내과 · 부인과 · 소아과  
 침구과 · 한방요법실

이리시 중앙동 3가 26-4 ☎ 52-4666  
 원장 김경환 (파비아노)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전문의 마기환  
 한 남희(비리시대)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85-2203

**코오롱 MANSTAR 맨스타 전주독약점**

30% 정기세일(전품목)  
 6월 25일 ▶ 7월 10일

주: 김 아드리야노(數中) ☎ 6-8415  
 전주시 중앙동 3가 26-1 (중앙동 풍년제과 옆)

**GS 금성이리판매센터 GS 금성통신독약점**

**이리 익산서비스 지정점**

공무원연금가 할인판매 무선전화기 카폰등  
 FAC 할부 3,6,9,12,15,18회 각종전화기 일괄 취급

전화 : 2-8661, 3-9963, 52-5422, 자택 52-4040  
 이리시 창인동 1가 181-4 (서울신대은행 앞) 김석환 (미태오)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 반미사안내 : 29일(수) 오후8시, 10반-임준규(3-4577)
  - \* 6월29일은 성베드로와 바오로사도 대축일입니다.
  - 1. 다음주일은 교황주일입니다.
  - 교황성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2차헌금이 실시됩니다.
  - 2. 공소미사: 오늘, 오후4:30
  - 3. 영세식 예정: 7월10일 종합교회는 5일부터
  - 4. 성체강복: 1일(금) 오후7시미사후
  - 5. 모임:  
계속형제회-오늘 오후2시 청년연합회-27일(월) 오후  
성심부녀회-1일(금) 어머니 미사후  
사 목 회-다음주일(3일) 공식미사후  
자 모 회-다음주일(3일) 오후3시
- ☐지난주봉헌금: 1,230,210원 ☐교무금: 717,500원

##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 예비자 입교식: 7월3일 공식미사
  - 1. 금주는 애령주간: 성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2. 차주는 교황주일: 특별헌금 있음
  - 3. 금성회: 오늘 공식미사후(야외) 4. 금암회: 28일 저녁
  - 5. 사목회, 금오회: 차주공식미사후
  - 6. 5월22일 영세자 첫 고백성사: 7월2일 오후1:30
  - 7. 해설자 복사단 모임: 차주공식미사후
  - 8. 금주전례: 해설-이창우 봉헌-김맹수부부 복사-정문영, 강남  
수 신자들의 기도-16반, 17반, 18반
  - 9. 차주전례: 해설-신동철 봉헌-백진호부부 복사-윤기환, 최계  
호 신자들의 기도-19반, 20반, 21반
  - 10. 미사안내:  
사랑하오신 모친Pr 차주-모든성인의 모후Pr
- ☐지난주봉헌금: 707,610원 ☐교무금: 1,480,000원

##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 1. 오늘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 2. 예언자의 모후 꼬미씨울 회의: 오늘 오후2시(성당에서)
  - 3. 진복회: 공식 미사후(사목회의실)
  - 4. 구역장 반장 모임: 30일(목) 오후2시(2층회의실)
  - 5. 전례분과 6월 모임: 29일 저녁8시(사목회의실)
  - 6. 7월 성시간: 1일(금) 저녁7:30
  - 7. 금주전례: 해설-정석의 복사·독서-요셉회주관 기도-덕진  
9반
  - 8. 금주분당청소: 로사리오의 모후Pr-2일 오후1:30
- ☐지난주봉헌금: 493,000원 ☐교무금: 749,000원

##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5-4212

- 1. 오늘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 2. 제대회 회원모임: 첫 모임 6월30일 목요일10시 미사후
  - 3. 성모성년 및 성체현의에 대한 연수회: 7월3일 오후2시 교육관
  - 4. 생활교회: 공식미사후 교육관(강수녀님)
  - 5.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사목회, 애덕회, 청년연합회, 차주  
공식미사후-애령회
  - 6. 금주구역미사·모임: 28일미사-관북5구역 29일나눔잔치-동  
산2구역 7월1일모임-내동공소(최연조)
  - 7. 금주청소: 은종의 어머니, 차주-하늘의 문
  - 8. 수녀님 방문: 매곡의 모후, 금-셋별의 모후
  - 9.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이의준 ②신문자  
차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김병만 ②문정순
- ☐지난주봉헌금: 287,850원 ☐교무금: 315,000원  
☐수요헌금: 23,930원

## \*서신동

사제관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병열

- \* 벽돌헌금함: 여러분의 정성어린 벽돌 한상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듭니다.
  - 1. 예비자 모집: 6월30일까지 한사람이 한분씩 인도합니다.
  - 2. 예비자교리안내: 7월3일 입교식 교리시간-7월7일 북요일(오전  
10, 오후8:30)
  - 3. 예비자 입교신청서: 빠짐없이 기록하여 7월3일까지 제출바랍니다.
  - 4. 사목회: 7월3일 공식미사후 회의실
  - 5. 모임:  
공식미사후 회의실 창립총회 50세미만 형제들, 7월10일 공식미  
사후 50세이상 모임을 갖습니다. 본당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6. 금주분당청소:  
중기자의 모후Pr 차주-애덕의 모후Pr
  - 7. 금주미사안내:  
애덕의 모후Pr 차주-사랑하올 모후Pr
  - 8. 금주미사전례: 해설-이귀래 독서①김영복 ②이한은 차주: 해  
설-선동현 독서①김남근 ②이영희
- ☐지난주봉헌금: 241,470원 ☐교무금: 197,000원

##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실 사목회장 소병울  
수녀원 4-1142

- 1. 모임:  
꾸리아월례회-오늘 오후2시(강당)  
대인회·요셉회-공식미사후  
청년회-오후8:30(회합실) 성심부녀회-1일 오전11시
  - 2. 첫 영성체 어린이 모집: 25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3. 봉성체: 29일 대상자는 미리신청 바랍니다.
  - 4. 개편된 반회합에 적극 참여합니다: 매월 둘째주간 화·수요일
  - 5. 오늘은 나눔의 날
  - 6. 금주분당청소: 셋별Pr 7월2일 오전11시
  - 7. 금주전례: 해설-이기림, 이진향  
독서-기도-마음교회  
차주전례: 해설-김광자, 김인백  
독서-기도-까리마스회
- ☐지난주봉헌금: 320,460원 ☐교무금: 486,000원

## \*숲정미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 \* 본당 사랑의 나눔이 잔치를 위해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분께 감사 드리며 이날 행사에 다함께 참여하여 주시어 주  
님께 기쁨이 되셨을니다.
- 1. 오늘: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요한회, 꾸리아(공식미  
사후)
- 2. 2일: 부녀회(오전10시) 구역장회의(오전11시)
- 3. 종교교리교사 연합회 하계 연수회: 7월1일-4일 장소-송광사  
제2야영장
- 4. 다음주일: 교황주일(2차헌금 있음)
- 5. 29일: 성베드로 성바오로 사도 대축일
- 6. 금주분당청소: 화-바다의 별 토-셋별의 모후
- 7. 미사안내: 순교자의 모후 차원-바다의 별
- 8. 미사해설: 강 삼 차원-강두호
- 9. 금주전례: 독서-기도-송광용, 이병순 봉헌·기도-양승진,  
홍신욱  
차주전례: 독서-기도-이규철, 고혜자 봉헌·기도-김용서,  
오영자 ☐지난주봉헌금: 369,900원

##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 1. 사목회 임사회: 오늘 공식미사후
- 2. 축 영명: 본당신부님 7월3일 축하식-3일 공식미사후
- 3. 꾸리아월례회: 오늘 오후2시 톨슨 피아노 학원
- 4. 성당 이사기념날: 30일 오후1시부터 많은 협조 바랍니다.
- 5. 새 성당에서 미사: 7월1일부터는 새 성전 지하실에서 미사를  
봉헌 합니다.
- 6.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7월13일부터 예비자교리를 개강합니다.  
예비자 인도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 7. 우리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신림과 남부에 최선을 씁니다.
- 8. 미사를 봉헌합니다: 가정용을 위한 생미사와 선영용을 위한 연미사  
를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 9. 중·고지도자 모집: 주님은 젊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10. 베소라(기쁜소식) 성서모임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 11. 금주안내: 구세주의 모친 다음주안내-사목회인원
- 12. 전화번호변경(사무실) 86-5022, 75-6389는 30일까지  
☐지난주봉헌금: 678,490원